

##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류 승 아†  
고려대학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복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삶의 중요한 지표인 직업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구체적으로 경쟁고용에 대한 태도와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대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태도 정도, 교육 경험 및 접촉 경험 등을 살펴보았다. 총 467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설문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1) 한국 대학생들은 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 필요성 측면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경쟁고용의 한계점과 현실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 측면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2) 정신 장애에 대한 학교 교육 경험, 정신장애인 접촉빈도 및 접촉인상은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3) 경쟁고용 태도의 영향요인에는 한국은 성별과 접촉인상이, 미국은 사회적 거리감과 접촉인상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한국의 정신 장애인들이 겪는 불이익 측면의 문제점을 보여주었고, 비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및 접촉 기회와 부재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비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과의 접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접촉인상이 태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직업 재활의 환경적 측면, 특히 편견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정신장애, 경쟁고용, 편견, 교육 경험, 접촉 경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증상으로부터 겪는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겪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정신장애인'이라는 낙인에 의한 편견과 차별이 그것이다(Hinshaw & Cicchetti, 2000; Johnstone, 2001).

낙인은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비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들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사회적인 반응으로 정의된다(Brunton, 1997). 더욱이 정신장애 재활 영역에서 낙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증상의 호전이 곧바로 그들의 질병으

---

\* 본 연구는 류승아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 류승아,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3290-1636  
Email: ilcheu@gmail.com

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태도는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증상이 개선된 후 사회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으로 말미암아 재발과 재입원이 반복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은 확실하다. 특히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고,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정신재활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손명자, 2006; Ahrens, Frey, & Burke, 1999).

미국의 경우,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계된 법률인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가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서 신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주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률은 고용주들이 채용, 해고, 보상,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05). 한국의 경우에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들이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적인 제언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조사에서 300명 이상의 작업장은 적어도 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1.49%에 그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상위 30위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겨우 1.14%에 그치고 있다(김원경, 임경아, 2007). 이는 신체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에 해당되는 결과이므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비율과 직업 차별은 다른 장애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이충렬, 김양호, 유철인, 이지호, 이현, 2003). 이러한 현상에 대해 Alexander와 Link(2003)는 정신장애인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가 실제로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태도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관련된 것이었고, 구체적인 직업능력에 대해서 비정신장애인들이 어떠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

므로 구체화된 직업능력에 관한 비정신장애인들의 태도 조사를 통해 직업과 관련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얻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 직업과 경쟁고용의 중요성

일과 직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활동이다. 직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가치 있는 구성원임을 확인시켜 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직업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그 누구도 경제적인 지원이 없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아무리 증상 자체가 호전되어 퇴원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병동이나 보호소를 찾게 될 수 밖에 없다(Farina & Felner, 1973). 그러므로 정신장애인들도 직업을 통해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Wahl, 1999). 둘째, 직장이라는 곳은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일터를 통한 타인과의 만남에서 적절한 인간 관계가 형성된다면 정신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Van-Dongen, 1996). Kelly(1987)는 정신장애인들이 그 사회에 잘 융합되어 살아가기 위한 환경 요건 중 하나로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과 상호 인간관계를 언급하였다. 일터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은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 생활의 본질인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셋째, 일터 그 자체가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Hand & Tryssenaar, 2006). Pettigrew와 Tropp(2000)는 접촉과 편견감소를 주제로 한 200개의 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일터에서의 만남이 유의미한 편견감소 효과를 가져왔음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이 일터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편견의 해소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실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1990년 고용 의무법(50명이 넘는 고용장의 경우 2%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 범주에 속하게 되어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성립되었다. 2007년 3월에는 '고용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적인 취약점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 고용비율은 10.4%에 그치는 실정이며, 심지어 이들의 업무도 대부분 단순 작업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선우 외, 2001). 정신장애인들의 실직률은 한국의 전체 실직률의 6.5배에 달한다고 보고되었고, 임금의 경우에도 직업재활 기관들에서 받는 장애인들의 평균임금은 2006년 6월 한국 평균 임금인 2,320,000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98,000원 이었다(나훈환, 2007).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직업유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Garske, 1999).

최근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경쟁직(competitive job)부터 시작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시도가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에도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상희, 손명자, 정현희, 2005). 경쟁고용(competitive employment)이란 적응력이나 기술을 점진적으로 훈련하는, 병원 내 작업 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임시고용 등의 보호 환경이 갖추어진 모의장소가 아니라 비정신장애인과 같은 환경 내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손명자, 2006). 많은 연구들은 보호환경의 일터보다 경쟁고용의 상황에서의 정신장애인 재활 효과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Cook & Razzano, 2000; Drake, Becker, & Bond, 2003). 반면, 보호환경 내의 일터에서만 일하여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재활의 최종목표인 경쟁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ellamy, Rhode, Mark, & Albin, 1988). 한국에서도 점차 경쟁고용의 비율을 늘리는 직업재활 기법을 사용하게 될 이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장벽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수정과 태도의 중요성

전통적 직업재활 접근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이유를 기술개발과 환경수정의 두 범주로 나누고 있다(Anthony & Liberman, 1986). 정신장애인 개인의 기술개발은 정신장애인들의 증상에 의한 주의력 저하, 사회성 결여, 과민성 증가 등의 기능적 제약에 초점을 두어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Fischler & Booth, 1999/2004). 반면에 환경수정의 범주에는 불공평한 법률, 제도상의 제약 및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등이 이에 속한다(Link, Phelan, Bresnanhan, Stueve, & Pescosolido, 1999). 지금까지 한국의 직업재활은 전자인 정신장애인 개인의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김상희 외, 2005). 하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환경수정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직장편의의 활성화, 전문가의 사후관리,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Kirsh, 2000; MacDonald-Wilson, Rogers, & Massaro, 2003). 개인의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접근법은 정신장애를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규정하여 정신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Gretz, 1992; O'Brien & Mount, 1991). 이에 반해 환경수정에 초점을 둔 접근법은 장애를 개인의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는 오히려 사회와의 관계로부터 빚어지는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Callahan & Garner, 1997; Renwick & Friefeld, 1996). 환경수정의 관점을 지지해 주는 많은 연구들은 정신질환 증상 자체는 직업재활의 성과와 연관성이 없으며, 정신질환의 진단과 성과 사이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음을 발표하고 있다(MacDonald-Wilson, Rogers, & Anthony, 2001; Srinivasna & Thara, 1997). 그러므로,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만으로 보는 시각을 뛰어 넘어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도 초점을 두어야 하며,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환경적 지지 기반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김상희 외, 2005).

환경수정의 여러 하위요인들 중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비정신장애인들의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McReynolds(2002)는 정신장애인들의 제

활은 그들이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지지의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며,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신장애인들의 낮은 취업률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다(Corrigan & Penn, 1999; Garske, 1999; Scheid, 1999). 또한 비정신장애인들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는 직업유지의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Kirsh(2000)는 36명의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는 직업 유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대인관계의 문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주된 원인임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들도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Becker, Bebout, & Drake, 1998; Wallace, Tauber, & Wilde, 1999). 그러므로 비정신장애인들의 태도나 인식이 직업 재활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 태도의 문화비교

각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오랜 관습과 삶의 축적물에 의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와 문화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가치 경험, 태도 및 행동들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Shonkoff & Phillips, 2000). 그러므로 문화비교 연구는 각 문화권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Hui & Triandis, 1985). 최근에는 정신 건강 영역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Okazaki & Sue, 1995). 왜냐하면 문화 및 사회적 상황의 차이로 말미암아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며, 그러한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도 문화적 배경이나 국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germeyer, Buyantugs, KENZINE와 Matschinger(2004)는 러시아, 몽골, 그리고 독일 국민들 사이에 정신분열증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신분열증과 관계된 낙인은 문화마다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결과는

낙인 감소 효과를 위한 중요한 제한점이다.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전략들은 각 국가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맞추어 실시되어야만 한다”(p. 425).

태도의 문화 비교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시아계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보다 정신장애 및 장애인에 대해 권위주의와 사회적 제한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의적인 태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an, 1999; Shokoochi & Retish, 1991). 또한 Chan 등(1988)도 미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에 비해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등의 서양보다 부정적인 시선이 강한 이유를 다음의 몇 가지 사실로 간추려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정신장애가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Ahn & Elizabeth, 1980). 이러한 생각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정신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적 활동은 아시아권 국가에서보다 정신장애를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법률, 보험 등의 실질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큰 발전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Gellis, Huh, Lee, & Kim, 2003). Gellis 등(2003)은 미국의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어린 환경의 조성과 낙인이나 차별에 반대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Shonkoff와 Phillips(2000)는 문화 변인과 관련된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의 경험적 연구와 자료들이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시행된 많은 동·서양 비교 연구들에서 수집된 동양권 데이터들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록,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한국인들과 같다는 결론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이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으나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결과들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Kuo(1984)의 연구에서도 한국 사람의 우울증 수준이 중국 사람보다 높다고 보고한 바 있고, Kumakura 등(1992)은 한국, 타이완, 일본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과 임상실습을 통한 정신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과 다른 관심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들은 미국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결과를 거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미국과 한국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들의 프로그램들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지의 적합도를 검증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손명자, 2006). 특히 한국에서의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미국보다 부정적이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자제하고 고통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참을성과 역제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AI-Issa, 1995). 그러므로 정신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심지어 죄책감까지도 느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Nearly, 2000).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 태도 조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외국의 좋은 프로그램의 도입과 실시 이전에 관련 영역에 대한 양국의 태도 비교 조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국가별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 비교의 연구는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나, 직업능력과 관련된 태도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영역에서 한국보다 일찍 개입을 시작한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쟁고용 태도의 구체적 항목들에 대한 비교, 현실적 지표를 볼 수 있는 교육이나 접촉의 경험, 그리고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개선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 경쟁고용 직업 능력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경험 요인

### 교육경험

정신장애의 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와 관련된 지식이 많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Corrigan et al., 2001; Penn, Kommana, Mansfield, & Link, 1999). 정경선(1996)의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 뿐 아니라 Holmes, Corrigan, Williams, Canar와 Kubiak(1999)의 연구는 정신장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정신장애 태도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후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는 학교 교육인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정신장애와 관련된 교육여부는 그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로는 정신건강 관련 수업을 들은 사회복지사들이 관련 수업 수강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박경희, 1994),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정금희, 1998).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한 두 번으로 끝나는 단발성보다 꾸준히 계속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임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Schulze, Richter-Werling, Matschinger, & Angermeyer, 2003). 이상의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면, 공교육인 학교 교육을 통한 정신장애 관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은 다른 질병인 암, 당뇨, AIDS 등의 질병과 비교해 볼 때 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Susin, 2004), 더욱이 학교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장애 교육이 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 등의 직업 능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주고 있

는 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서 시행되는 정신장애 관련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 접촉 경험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많은 연구가 접촉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Corrigan et al., 2001; Link & Cullen, 1986; Link et al., 1999). 정신장애인과의 접촉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차별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보다 정확한 정보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신장애인들을 덜 위협적이라고 진술했다(Couture & Penn, 2003; Penn et al., 1999; Vezzoli et al., 2001). Corrigan 등(2001)의 연구는 비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편견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접촉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한편, 접촉에 의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는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접촉의 효과성은 고용주들에게도 나타났는데, 정신장애인들과 접촉 경험이 있는 고용주들은 채용 시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정신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iksa & Rogers, 1996). Pinfold 등(2003)의 연구는 접촉의 긍정적인 결과가 아동들에게도 적용됨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의 연구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 편견감소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인 접촉을 경험한 아이들이 접촉 경험이 없었던 아이들보다 유의미하게 태도가 변화하였다. 또한 접촉의 효과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이스라엘, 홍콩 등 많은 나라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Arikan & Uysal, 1999; Choi & Lam, 2001; Chou & Mak, 1998; Ingamells, Goodwin, & John, 1996; Read & Law, 1999).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실시된 접촉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접촉의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구분이 미국 등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보다 훨씬 강하다(Triandis, 1995). 또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준이나 가치 등이 곧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도 예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 정신장애인과의 접촉을 통한 그들과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것이 정신장애라는 특징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 질수도 있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 가 여겨진다.

접촉 변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 단순히 접촉의 유무만으로 접촉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Levin(2001)은 접촉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면 왜 정신건강 관계자들이나 응급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Brunton(1997)의 연구도 증가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장애인들과의 접촉이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 낸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Lyons와 Haynes(1993)는 정신장애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접했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발표하였고, Phelan, Link, Stueve와 Pescosolido(2000) 또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호의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변수가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접촉 효과의 실질적인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은 접촉 빈도와 접촉인상을 제안한다(Phelan et al., 2000; Yuker, 1995). Ingamells 등(1996)의 연구는 접촉빈도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신장애인들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접촉빈도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Jackson, 1993; Weller & Grunes, 1988). 접촉빈도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Islam과 Hewstone(1993)은 접촉이 증가할수록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친근감 또한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고정관념들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접촉빈도 외에도 접촉 시 받았던 접촉인상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Kolodziej와 Johnson(1996)은 접촉과 관련된 논문들의 리뷰를 통해 비정신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정신장애인들

과의 접촉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는지의 여부라고 강조하면서, 접촉인상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장애인과의 긍정적인 접촉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한다(Hand & Tryssenaar, 2006; Wilgosh & Mueller, 1989). 그러므로 접촉변인의 여러 하위변인들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본 연구에서는 접촉의 변수를 접촉빈도와 접촉인식(긍정/부정)의 하위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 경쟁고용 태도에 영향을 주는 그 외 개인 요인

#### 성별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와 성별의 관계를 조사한 이전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남자가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들(박정우, 백기청, 곽영숙, 1995; 최윤신, 1998)이 있는 반면 여자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연구들(정경선, 1996; Kim, 1993)도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류승아, 2001; Wolff, Pathare, Craig, & Leff, 1996).

#### 나이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ink & Cullen, 1986; Penn et al., 1999). Gaebel, Baumann, Witte와 Zaeske(2002)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 수 없으며, 직업을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Arboleda-Florez(1999)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동네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이존증감

MacDonald와 Hall(1969)은 개인의 성향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의 예언변인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Couture와 Penn(2003) 또한 비정신장애인들의 성격과

편견감소 프로그램의 효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신장애인들의 성격 변인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Johannsen, Redel와 Engel(1964)의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높은 자이존증감과 정신장애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류승아(2001)의 연구에서도 높은 자이존증감을 가진 대학생들이 정신장애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자이존증감의 의미가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부여하는 주관적인 가치, 평가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Blascovich & Tomaka, 1991)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자이존증감이 타인 수용성과 타인과의 관계 정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은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Hofstede, 2001). 개인주의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개인의 목적보다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Hofstede, 2001). 일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동양에서는 집단주의가 우세하고, 미국, 영국 등의 서구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Han & Ahn, 1994). 대부분의 비교 문화 연구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Westbrook, Legge, & Pennay, 1993). 하지만, 최근의 동향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서양은 개인주의 사회이고, 동양은 집단주의 사회라고 단정 짓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의 결과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학생들보다 미국 학생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낮은 반면(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ia, 1988),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Wilcox, Ko, Gentry, Stricklin, & Jun,

1996)도 있다. 더 나아가 같은 문화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다른 태도, 의견, 행동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으로, Singelis와 Brown(1995)은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문화적 태도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집단주의 문화권 내의 사람들 중 개인주의 문화권 내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심성욱,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같은 문화권 내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관련된 정신장애와 태도와 의 관계를 보려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Dutta-Bergman & Wells, 2002), 둘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개념을 단일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Triandis(1995)는 개인주의-집단주의를 다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병희(2006)의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가치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주의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단일차원으로 규정하며, 개인주의가 높으면 집단주의 성향은 낮다는 식의 일반적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다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또한 개인의 성향에 따른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 개인 요인으로 설정하여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영역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 간의 차이가 있는가?

(1) 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에 대한 태도가 국가별 차이(한국 vs. 미국)를 보이는가?

(2)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관한 학교 교육 경험 이 국가별 차이(한국 vs. 미국)를 보이는가?

(3) 정신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이 국가별 차이(한국 vs. 미국)를 보이는가?

2.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경쟁고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방법

### 연구대상

설문에 참가한 조사 대상자는 서울과 대구의 한국 소재 대학생 243명과 미국 동남부 소재 대학생 259명이었으나, 정확한 문화 비교를 위해 미국 대학생 중에서 아시아인이라고 답한 27명과 Mahalanobis distance ( $p < .001$ )를 이용하여 8명의 다변량 이상값(multivariate outlier)을 제외한 총 224명의 미국 대학생들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한국 설문 응답자들의 경우 다변량 이상값을 보이는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심리학 기초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며, 평균 나이는 한국 대학생 집단이 20.88세( $SD=2.17$ ), 미국 대학생 집단은 19.04세( $SD=1.46$ )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1학년(30.5%)과 2학년(36.0%)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미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57.6%)이 2학년(26.8%)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은 59.6%(한국)와 58.5%(미국)로 집계되었다.

설문을 위한 자료는 2007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수집되었으며, 그 형식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학 수업 담당 강사의 도움으로 설문 조사 대상자들을 모집하였으며, 미국 대학생들은 설문지에 대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심리학개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은 온라인 설문조사 툴(surveymonkey.com)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사례는 두 국가 모두 설문 참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동일하였다. 설문수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국가의 자료 수집 절차는 최대한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지의 배열, 디자인, 형식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 측정도구

#### 자이존중감

개인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이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Rosenberg(1973)가 개발한 척도를 전병재

(1974)가 번안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긍정 문항과 5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정 문항은 그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2(한국)와 .88(미국)의 수치를 보였다.

####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는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에 의해 개발되었고, 한국은 김기범(1996)에 의해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개 문항으로써, 두 하위그룹인 16개의 개인주의 문항과 16개의 집단주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주의는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말하며, 집단주의는 상호의존적이고 공동체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뜻한다. 문항은 7점 척도로써(1:강하게 부정 - 7:강하게 긍정)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 집단에 의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개인주의 하위척도가 .81의 수치를 보였고, 집단주의 하위척도는 .83이었으며, 미국 대학생 집단의 개인주의는 .74, 집단주의는 .80으로 나타났다.

#### 학교 교육에서 시행한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교육여부

양국 대학생들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받은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되었다. 설문지는 정신장애 관련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어떤 형식(토론, 강의, 유인물)으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접촉 경험

접촉 경험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단순한 접촉 경험 여부를 심화하여 접촉빈도와 접촉인상으로 세분화하였다. 먼저 정신장애인과와의 접촉이 어떠한 관계(부모, 형제, 친척, 친구, 자원봉사자의 입장으로, 함께 일한 동료, 공공장소)를 통해 형성되었는지에 답변한 후, 경험

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 접촉의 빈도와 접촉인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다고 답한 학생은 추가적으로 그 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5점 척도(1:전혀 만나지 않음 - 5:매일)로 답변하였고, 또한 그 친구에 대한 느낌을 다시 5점 척도(1:아주 나쁘다 - 5:아주 좋다)로 표현하였다.

####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척도(*Social Distance Scale*)는 정신장애인과 사회적 활동을 함께 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의지를 묻는 문항들이다(Chung, Chen, & Liu, 2001; Hand & Tryssenaar,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고용과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여 4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당신은 정신장애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들을 친구 회사에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고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같은 프로젝트에서 파트너나 책임자로서 그들과 함께 일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들은 모두 4점 척도로써 '전혀 없다(1)'에서 '강하게 있다(4)'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두 국가 모두 .91로 나타났다.

####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태도

경쟁고용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Hand와 Tryssenaar(2006)가 개발한 총 21문항의 *Attitudes Towards The Employability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cale(ATTEMP)*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위척도는 '경쟁고용의 적절성(Appropriateness of Competitive Employment)'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경쟁적 고용의 기회 등이 이들에게 잠재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써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경쟁고용의 불이익(Disadvantages of Competitive Employment)'은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으로 인해 고용주나 동료들에게 미치게 될 잠재적 타격과 함께 장애인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총 10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고용의 적절성'은 점수

가 높을수록, '경쟁고용의 불이익'은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한국 집단에서는 '경쟁고용의 적절성'이 .79였으며, '경쟁고용의 불이익' 요인은 .67로 나타났다. 미국집단의 경우 전자는 .84였고, 후자는 .86로 한국에 비해 조금씩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 척도 변안

변안이 필요한 4개의 척도(학교 교육 경험, 접촉 경험, 사회적 거리감 및 경쟁고용 직업능력 태도)는 다른 비교 문화 연구에서 빈번히 사용한 이중 변안(double-translation) 방법을 사용하였으며(Chan et al., 2002), 영어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3명의 심리학 전문가와 2명의 타 전공인들이 변안 작업에 참여하였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oftware(SPSS) 15.0으로 분석되었다. 경쟁고용 직업능력 태도, 학교 교육 경험, 접촉경험 등의 변인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와  $\chi^2$ 을 사용하였고, 대학생들의 경쟁고용에 대한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표 1은 경쟁고용 태도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경쟁고용 적절성'에 대한 두 국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t-test 결과 '경쟁고용 적절성'은 한국 대학생들( $M=4.84$ ,  $SD=.75$ )이 미국 대학생들( $M=4.52$ ,  $SD=.83$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65)=4.41$ ,  $p<.001$ . 이는 한국 대학생들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경쟁적 고용의 기회 등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보다 동의한다고 답한 것이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두 문항(예를 들면, '정신장애인들이 비정신장애인들과 경쟁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은 그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대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각 집단 내에서 가장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은 '비정신장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직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항목에 가장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M=5.45$ ,  $SD=1.19$ ). 반면에 '비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작업환경은 정신장애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항목은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M=4.02$ ,  $SD=1.36$ ). 반면, 미국 대학생들은 '정신장애인들이 비정신장애인들과 경쟁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역채점 문항)'는 질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비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을 위한 준비가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데 가장 많이 동의하였다( $M=5.14$ ,  $SD=1.50$ ). 반대로 '비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으로써 가장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M=3.72$ ,  $SD=1.37$ ).

표 2는 경쟁고용 태도의 두 번째 요인인 '경쟁고용 불이익'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경쟁고용 불이익' 하위척도는 '경쟁고용 적절성'과 반대로 한국 대학생들( $M=4.62$ ,  $SD=.75$ )이 미국 대학생들( $M=3.96$ ,  $SD=.97$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65)=8.25$ ,  $p<.001$ . 이는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보다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으로 인해 고용주나 동료들에게 미치게 될 잠재적 타격과 함께 장애인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태도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쟁고용 불이익'의 하위척도에서 두 국가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실제 직장 환경은 정신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방해 요소들을 매우 많이 안고 있다'의 문항이다,  $t(465)=19.53$ ,  $p<.001$ . 이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한국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표 1.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 적절성' 척도에 대한 두 국가의 평균 차이 비교 분석

문항	한국		미국		t
	M	SD	M	SD	
비정신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정신장애인은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다.	4.53	1.46	3.72	1.37	6.15***
적절한 지원체계가 동반된다면 정신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신뢰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	5.17	1.29	4.84	1.30	2.75**
정신장애인들이 비정신장애인들에 뒤지지 않는 직업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4.79	1.41	3.85	1.53	6.81***
정신장애인들이 비정신장애인들과 경쟁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sup>a</sup>	4.99	1.50	5.14	1.50	-1.12
비정신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작업환경은 정신장애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4.02	1.36	4.00	1.23	.21
비정신장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직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5.45	1.19	4.92	1.32	4.50***
비정신장애인들이 직장동료로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일한다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5.09	1.36	4.39	1.37	5.60***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도 비정신장애인에 뒤지지 않는 직업기술을 익힐 수 있다.	4.95	1.19	4.69	1.27	2.31*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직업훈련은 정신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5.09	1.15	4.52	1.16	5.37***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4.50	1.32	5.03	1.23	-4.48***
정신장애인들의 생산성도 비정신장애인들 만큼 향상될 수 있다.	4.67	1.24	4.59	1.49	.64
<b>경쟁고용 적절성</b>	4.84	.75	4.52	.83	4.41***

주. '경쟁고용 적절성'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sup>a</sup> 역채점 문항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들이 비정신장애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함을 뜻한다.

\* $p < .05$ , \*\* $p < .01$ , \*\*\* $p < .001$ .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훨씬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문항에 가장 동의했으며( $M=6.18$ ,  $SD=.90$ ), 미국 대학생들 또한 이 문항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결과를 보였다( $M=5.45$ ,  $SD=1.30$ ). 두 하위요인을 비교해 보면 두 국가 모두 '경쟁고용 적절성'이 '경쟁고용 불이익'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간의 차이에서

'경쟁고용 불이익'의 차이(한국  $M=4.62$ ; 미국  $M=4.02$ )가 '경쟁고용 적절성'의 차이(한국  $M=4.84$ ; 미국  $M=4.52$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국가 대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정신장애 관련 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표 3).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 한번이라도 정신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한국 학생들이 66.3%로 95.5%의 미국 학생들에

표 2.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 불이익'척도에 대한 두 국가의 평균 차이 비교 분석

문항	한국		미국		t
	M	SD	M	SD	
정신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때는 실제 직업 현장보다 적절히 통제된 모의환경이 더 적합하다.	4.67	1.71	4.37	1.65	1.70
중증정신장애인의 부모들은 자녀가 일반인들과 함께 일하는 곳보다 정신장애인으로 보호 받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4.52	1.78	4.36	1.81	.85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6.18	.90	5.45	1.30	6.87***
비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일한다면 비정신장애인들의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다.	3.39	1.68	3.04	1.54	2.05*
실제 직장환경은 정신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방해 요소들을 매우 많이 안고 있다.	6.02	.88	3.54	1.57	19.53***
정신 장애인들은 출석이나 시간약속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57	1.70	3.06	1.37	3.07**
비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 동료들과 대화나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4.24	1.59	3.49	1.70	4.45***
비정신장애인들에 의한 정신장애인들의 차별이나 학대를 자주 볼 수 있다.	4.67	1.54	3.09	1.59	3.49***
정신장애인들은 직업훈련이나 워크샵보다 실제 일터에서 좌절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	5.40	1.20	4.98	1.43	2.99***
장애인 의무 고용제등으로, 정신장애인들이 비정신장애인 수준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비정신장애인들의 직업기회를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3.07	1.56	3.21	1.73	-.78
<b>경쟁고용 불이익</b>	<b>4.62</b>	<b>.75</b>	<b>3.96</b>	<b>.97</b>	<b>8.25***</b>

주. '경쟁고용 불이익'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므로 경쟁고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 $p < .05$ , \*\* $p < .01$ , \*\*\* $p < .001$ .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 N=467)=58.43, p < .001$ . 교육 단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chi^2(1, 467)=26.23, p < .001$ ,와 고등학교,  $\chi^2(1, 467)=74.94, p < .001$ ,에서 받은 교육 경험의 차이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미국 학생들은 토론티식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접했고(초등학교 84.0%, 중학교 93.2%, 고등학교 96.5%), 한국 학생들은

유인물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91.8%, 중학교 90.6%, 고등학교 87.8%). 정신장애인과 접촉에 대한 질문에서도 두 국가 대학생들은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접촉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한국 226명, 전체 93.0%, 미국 221명 전체 98.2%) 접촉빈도와 접촉인상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접촉빈도를 보면, 미국 대학생들( $M=3.04, SD=.84$ )이 한국 학생들( $M=2.77, SD=.69$ )보다 정신장애인들을 더욱 빈번하게 접촉하였고,  $t=-3.67, p < .001$ , 접촉에 대한 인상 역시

표 3. 학교 교육에서 정신장애관련 교육 여부에 대한 두 국가의 차이 비교 분석

교육수준	프로그램 경험여부	프로그램종 류	한국 N = 243	미국 N = 222	$\chi^2$ (df=1)
초등학교	있음		50.2% (122명)	56.3% (125명)	1.47
		토론	48.4% (59명)	84.0% (105명)	
		강의	26.2% (32명)	46.4% (58명)	
		유인물	91.8% (112명)	53.6% (67명)	
중학교	있음		56.8% (138명)	79.7% (177명)	26.23***
		토론	52.2% (72명)	93.2% (165명)	
		강의	42.8% (59명)	40.7% (72명)	
		유인물	90.6% (125명)	72.9% (129명)	
고등학교	있음		53.9% (131명)	90.9% (202명)	74.94***
		토론	55.7% (73명)	96.5% (195명)	
		강의	44.36% (58명)	42.6% (86명)	
		유인물	87.8% (115명)	74.8% (151명)	
전체	있음		66.3% (161명)	95.5% (212명)	58.43***

주. 프로그램의 종류는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 중 복수응답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류의 총 합이 100%를 넘을 수 있다(한국 93.0%, 미국 98.2%).

\*\*\* $p < .001$ .

미국 대학생들( $M=3.84$ ,  $SD=.76$ )이 한국 대학생들( $M=2.92$ ,  $SD=.67$ )보다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t=-13.50$ ,  $p < .001$ .

마지막으로 두 국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

표 4. 접촉빈도와 접촉인상에 따른 두 국가의 평균 차이 비교 분석

접촉 경험	한국 (n=226)		미국 (n=221)		t
	M	SD	M	SD	
	접촉빈도	2.77	.69	3.04	
접촉인상	2.92	.67	3.84	.76	-13.50***

주. 접촉빈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주 접촉하였음을 의미하고, 접촉인상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임을 뜻한다.

\*\*\* $p < .001$ .

애인의 경쟁고용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두 하위 척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자아존중감, 집단주의, 개인주의, 사회적 거리감, 학교 교육, 접촉빈도 및 접촉인상이 설정되었다. 회귀분석에 앞서 예측 변인으로 설정된 변인들 중 자아 존중감, 개인주의-집단주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국가 간 평균 비교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아 존중감은 한국 대학생들보다 미국 대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t=-7.99$ ,  $p < .001$ , 사회적 거리감 역시 미국 대학생들이 정신장애인들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t=-6.06$ ,  $p < .001$ . 하지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결과는 점수는 예상과는 달리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개인주의의 성향,  $t=-2.98$ ,  $p < .01$ ,을 보였으며,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낮은 성향의 집단주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 자아 존중감, 개인주의-집단주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두 국가의 평균차이 비교 분석

	한국 (n=243)		미국 (n=224)		t
	M	SD	M	SD	
자아 존중감	2.86	.44	3.21	.50	-7.99***
개인주의	4.92	.70	4.74	.63	2.98**
집단주의	4.79	.70	4.85	.70	-.91
사회적 거리감	2.63	.39	2.87	.46	-6.06***

주. 자아 존중감 점수는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뜻하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척도는 높을수록 각 개념의 성향이 높음을,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점수는 높을수록 호의적인 상호작용의 의사가 있음을 뜻한다.  
\*\* $p < .01$ , \*\*\* $p < .001$ .

예측 변인과 종속 변인을 포함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7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에서 두 국가 모두 두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쟁고용 적절성'은 한국이  $R^2=.25$ ,  $F(9, 208)=7.74$ ,  $p < .001$ , 미국이  $R^2=.19$ ,  $F(9, 201)=5.33$ ,  $p < .001$ 으로 나타났고, '경쟁고용 불이익'은 한국이  $R^2=.16$ ,  $F(9, 208)=4.52$ ,  $p < .001$ , 미국이  $R^2=.24$ ,  $F(9, 200)=6.84$ ,  $p < .001$ 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쟁고용 적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성별,  $\beta=.19$ ,  $t=2.80$ ,  $p < .01$ , 집단주의,  $\beta=.27$ ,  $t=4.19$ ,  $p < .001$ , 사회적 거리감,  $\beta=.19$ ,  $t=3.02$ ,  $p < .01$ , 접촉빈도,  $\beta=.14$ ,  $t=2.23$ ,  $p < .05$ , 및 접촉인상,  $\beta=.17$ ,  $t=2.74$ ,  $p < .01$ ,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1)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2)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3)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4) 정신장애인과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5) 그들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신장애인들이 경쟁 고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집단주의,  $\beta=.16$ ,  $t=2.26$ ,  $p < .05$ , 사회적 거리감,  $\beta=.28$ ,  $t=4.26$ ,  $p < .001$ , 및 접촉인상,  $\beta=.20$ ,  $t=2.70$ ,  $p < .01$ , 등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1)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2)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접촉인식이 좋을수록 정신장애인들이 경쟁 고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고용의 적절성'척도는 두 국가 모두에서 집단주의, 사회적 거리감, 접촉인상이 공통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고용의 불이익'문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국의 경우, 성별,  $\beta=-.15$ ,  $t=-2.02$ ,  $p < .01$ , 자아존중감,  $\beta=-.25$ ,  $t=3.63$ ,  $p < .001$ , 및 접촉인상,  $\beta=-.16$ ,  $t=2.37$ ,  $p < .05$ ,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학생들은 (1)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2)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으로 일어나는 고용주나 비정신장애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에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자아존중감,  $\beta=-.19$ ,  $t=-2.90$ ,  $p < .01$ , 개인주의,  $\beta=.20$ ,  $t=3.01$ ,  $p < .01$ , 사회적 거리감,  $\beta=-.27$ ,  $t=-4.21$ ,  $p < .001$  및 접촉인상,  $\beta=-.16$ ,  $t=2.20$ ,  $p < .05$ ,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미국 대학생들은 (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2)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3)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수록,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으로 일어나는 고용주나 비정신장애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에 상대적으로 관대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두 국가 모두 자아존중감과 접촉인상이 '경쟁고용 불이익'문항들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6.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경쟁고용 적절성		-.186**	.203**	-.004	.175**	.310***	-.007	.232***	.083	.239***	.283***
(2) 경쟁고용 불이익	-.308***		-.167**	-.011	-.184**	.025	.139**	-.110	-.061	-.153*	-.204**
(3) 성별	.088	-.073		-.403***	.088	-.070	-.209***	.061	.033	.144*	.015
(4) 나이	-.039	.029	-1.09		.146*	.039	.206**	.063	-.161*	-.046	-.011
(5) 자아존중감	.095	-.189*	.039	-.021		.218***	.303***	.032	-.069	.009	.079
(6) 집단주의	.231***	.043	.148*	-.182**	.156*		.253***	-.020	.114	.097	.184**
(7) 개인주의	.081	.256***	-.200**	-.051	.041	.241***		-.109	.019	-.082	-.054
(8) 사회적 거리감	.266**	-.275***	.087	.017	-.075	.004	-.139*		-.065	.010	.083
(9) 학교교육경험	-.067	.001	-.040	.007	.074	.085	-.013	-.055		.099	.090
(10) 접촉빈도	.134*	-.216***	.030	-.112	-.010	-.009	-.024	.082	.025		.211***
(11) 접촉인상	.270***	-.279***	.093	-.222***	.274***	.281***	-.088	.062	.119**	.333***	

주. 오른쪽 위 대각선은 한국 대학생들의 자료이며, 왼쪽 아래 대각선은 미국 대학생들의 상관 분석 결과이다.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7. 경쟁고용의 태도의 회귀 분석

예측변인	경쟁고용 적절성						경쟁고용 불이익					
	한국			미국			한국			미국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성별	.30	.11	.19**	.13	.11	.08	-.23	.11	-.15**	-.01	.13	-.01
나이	.02	.02	.06	.06	.04	.10	-.04	.03	.11	-.01	.05	-.02
자아존중감	.16	.11	.09	.17	.11	.04	-.43	.12	-.25***	-.37	.13	-.19**
집단주의	.29	.07	.27***	.19	.08	.16*	.07	.07	.06	.07	.10	.05
개인주의	-.06	.08	-.06	.10	.09	.08	.13	.08	.12	.32	.11	.20**
사회적 거리감	.36	.12	.19**	.50	.12	.28***	-.16	.12	-.08	-.57	.14	-.27***
학교교육경험	.09	.10	.05	-.30	.23	-.08	-.17	.11	-.10	.07	.27	.02
접촉빈도	.15	.07	.14*	.04	.07	.04	-.09	.07	-.08	-.13	.08	-.11
접촉인상	.19	.07	.17**	.22	.08	.20**	-.18	.07	-.16*	-.21	.09	-.16*
F	7.74***			5.33***			4.52***			6.84***		
R <sup>2</sup>	.25			.19			.16			.24		
Adj. R <sup>2</sup>	.22			.16			.13			.20		

\* $p < .05$ , \*\* $p < .01$ , \*\*\* $p < .001$ .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신장애인들이 가지는 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과 관계된 내용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국보다 일찍 직업재활을 시작하여 발전시킨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 대학생들과의 경쟁고용 태도 비교에 더하여 공교육인 학교에서의 정신장애 관련 교육 현실과 정신장애인의 접촉에 있어서도 양국 학생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경쟁고용 태도 척도의 두 하위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의 4가지 측면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대학생들의 경쟁고용 태도에 대한 논의: (2) 정신장애 관련 교육에 있어 한국의 학교 교육 현실에 대한 논의: (3) 정신장애인들과의 접촉과 관련하여 한국의 현실에 대한 논의: (4)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정신장애인들의 경쟁고용 태도 변화를 위한 모색.

첫째, 한국 대학생들은 정신장애인들이 경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는 질문에는 미국 대학생들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들은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경쟁적인 직업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경쟁고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의 이러한 생각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질문에 대한 결과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고용주들은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고, 실제 작업 환경은 정신장애인에게 많은 방해 요소들을 안고 있으며, 일터에서의 차별이나 학대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는 대답은 현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직업 훈련은 통제된 장소가 적합하고, 이들이 출석이나 시간 약속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비정신장애인들은 이들과 대화나 접촉을 꺼린다는 반응은 한국 대학생들이 보여준 다른 문항들의 긍정적인 대답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정신장애인들이 경쟁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벽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둘째, 학교 교육에서 시행되는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의 결과는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정신장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1회 이상 접해본 적이 있는지는 질문에 한국 대학생들은 66.3%라고 대답했고, 이에 비해 미국 대학생들의 95.5%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한국 청소년의 1/3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구조화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도 미국 학생들은 토론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를 이루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유인물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토의와 대화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잘못된 통념이나 편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단순히 유인물이나 전단지 배포로만 그치는 한국의 정신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하겠다.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볼 또 다른 측면은 학교에서 받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장애와 관련된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받지 못한 학생들 간의 경쟁고용 태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식적인 측면을 강화한다는 것이 곧바로 태도의 변화와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Link 외, 1999). 이는 단순히 정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과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들의 직업능력과 관련된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어렵거나 호의적인 태도로 변화시키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 Holmes 외(1999)는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The Opinion About Mental Illness: OMI)'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척도의 하위요인 중 '자비심'(예를 들면, '우리는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신장애인이 가능한 한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과 '사회생활제한'(예를 들면, '정신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정신장애인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책임을 완수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의 영역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권위주의(예를 들면, '자기조절을 못하고 의지력이 약한 것이 정신장애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정신장애의 증상을 조금만 보이면 무조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영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관련 내용들도 다른 영역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힘든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 있는 설명은 교육 프로그램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Corrigan와 Penn(1999)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론이나 토의 등의 참여적인 형태의 교육방법이 일반적 강의만 하는 형식보다 훨씬 효과적이다"(p. 772)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행해지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능력과 관련하여 비정신장애인들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강의나 진단지를 배포하는 수준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법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논의는 한국 대학생들은 그들이 접촉했던 정신장애인과의 만남의 횟수가 미국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또한 그들이 만났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느낌도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접촉빈도와 접촉인상이 경쟁고용 태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사실 접촉요인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고, 특히 접촉빈도와 접촉인상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Hand & Tryssenaar, 2006; Ingamells et al., 1996; Kolodziej & Johnson, 1999). 접촉 빈도의 또 다른 의미는 정신장애인들에게 본질적인 지지체계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재활의 의미는 그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접촉은 비정신장애인들이 가지는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에 더하여 2차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함께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 간의 접촉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이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잘 구조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만남의 차원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감소할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와 가능성도 일어날 수 있다(Brunton, 1997; Levin, 2001). 접촉의 질이 중요하다는 제안은 최근에 주장된 것은 아니다. Allport(1954)는 편견해소를 위해서는 접촉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접촉은 편견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간접적인 접촉에 대한 지원도 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간접 접촉 통로는 TV, 라디오,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대중매체일 것이다. 하지만, 대중매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정신장애와 관련된 영화나 서적은 정신장애인들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환상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Corrigan & Penn, 1999). 그 외에도 중범죄와 관련시켜 폭력적이고, 위협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Arboleda-Florez, 2003).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은 비정신장애인들의 자발적인 접촉의 의지를 감소시키고, 실사 정신장애인과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가진다고 해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엄청난 효과를 고려한다면, 대중매체에서 무방비로 전파되는 편견이나 차별적 시각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편견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넷째, 경쟁고용 관련태도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입을 숙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같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영향 요인이 다르다는 사실은 편견감소를 위한 전략도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비정신장애인들의 성별이나 개인의 성격 등도 긍정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과는 편견감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예를 들면, 구체적인 접촉 외에도 남학생들에게 보다 강도 있는 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구성한다거나, 낮은 집단주의 성향이나 낮은 자이즌중감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개인적 특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려주는 부가적인 전략을 편견감소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한다면 편견감소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또 다른 결과는 경쟁고용 필요성 측면(예를 들면, '비정신장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직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보다 경쟁고용의 한계점과 비정신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측면(예를 들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 동료들과 대화나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에 보다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나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Brown, Berkell, & Schmelkin, 1992; Hand & Tryssenaar, 2006). 이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아직 현실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상황이 바람직한 수준까지는 접근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나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상황은 상당히 열악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때 본 연구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항목들에 드러난 잘못된 편견이나 태도를 강조하여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의 결과에서 드러난 개인주의-집단주의 결과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먼저, 표 5에서 보여지듯이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의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 점수를 비교할 때,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높은 개인주의 성향과 낮은 집단주의 성향을 보인 것은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이는 서양은 개인주의 성향이, 동양은 집단주의 성향이 우세하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현실적인 적용이 힘들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심성욱, 2003; Triandis

외, 1988; Wilcox 외, 1996)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6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국 모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결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의는 앞서 언급한 개인주의-집단주의를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구성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김병희(2006)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을 단순히 반대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많은 연구들에서 주의 깊게 고려해 봐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일반화되고 정형화된 개인주의-집단주의 연구에 대해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화된 태도 조사에서 탈피하여 직업능력 태도에 초점을 둔 구체적 태도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직업은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만족감 및 지역사회로 재편성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Eklund, Hansson, & Bejerholm, 2001; Kirsh, 2000). 또한 직업 재활 분야가 한국보다 발전된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볼 수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도 영향 요인을 다각적인 방향, 즉 인구통계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성격 변인, 교육경험, 접촉경험 등 다양한 접근을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도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데 폭 넓은 시각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정신장애인들의 변인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의 증상에 따라 비정신장애인들이 가지는 직업능력 편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장애 증상에 따른 비정신장애인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것도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모집되었으므로, 각 국가 대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화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 쓰인 경쟁고용 태도척도는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것이므로 측정 도구의 문항이 문화적으로 적절하지는 문항들의 요인분석이나 다른 측정도구들과의 타

당도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태도 조사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써,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그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Gibson과 Groeneweg(1986)는 고용주들과의 면담에서 2/3의 고용주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1/3만이 '지금 고용지원서를 받겠다'는 질문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설문이나 면담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에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Eagly & Chaiken, 1993).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희, 손명자, 정현희 (2005).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장 편의. *한국심리학회: 일반*, 24(1), 1-22.
- 김원경, 임경아 (2007). 아시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지원 및 고용촉진. Workability International-ASIA 연차 총회 세미나 자료. 5월 29일. 서울: 여성프라자. www.hssamo.co.kr에서 2008, 1, 9 인출.
- 나훈환 (2007).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확대방안. Workability International-ASIA 연차 총회 세미나 자료. 5월 29일. 서울: 여성프라자. www.hssamo.co.kr에서 2008, 1, 9 인출.
- 류승아 (2001).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우, 백기청, 곽영숙 (1995). 일반인과 정신과 환자 보호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4(4), 1105-1118.
- 박경희 (1994).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명자 (2006).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5-27.
- 심성욱 (2003). 개인의 문화적 조화-부조화와 광고효과: 잡지광고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4(4), 27-44.
- 이선우, 김성희, 박정기, 권선진, 유동철 (2001). 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서울: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 이충렬, 김양호, 유철인, 이지호, 이현 (2003). 한국에서의 정신질환과 업무적합성. *대한산업의학회지*, 5(3), 224-236.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정경선 (1996).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금희 (1998). 정신질환교육이 고등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신 (1998). 일반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조사. 협성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Ahn, T., & Elizabeth, S. (1980). Counseling Asians: Psychotherapy in the context of racism and Asian-American history. *American Journal of Ortho Psychiatry*, 50, 76-86.
- Ahrens, C. S., Frey, J. L., & Burke, S. C. (1999). An individualized job engagement approach for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65, 17-24.
- Alexander, L. A., & Link, B. G. (2003). The impact of contact on stigmatising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Mental Health*, 12(3), 271-289.
- Al-Issa, I. (1995). *Handbook of culture and mental illne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Madison, CT: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Addison-Wesley.
- Angermeyer, M. C., Buyantugs, L., Kenzine, D. V., & Matschinger, H. (2004). Effects of labeling on public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schizophrenia: Are there cultural difference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9(6), 420-425.
- Anthony, W. A., & Liberman, R. P. (1986). The practice of psychiatric rehabilitation: Historical,

- conceptual, and research base. *Schizophrenia Bulletin*, 12, 542-559.
- Arboleda-Florez, J. (1999). Editorial - On the Evolution of Mental Health System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17(5), 377-380.
- Arikan, K., & Uysal, O. (1999). Emotional reactions to the mentally ill are positively influenced by personal acquaintance. *Israel Journal of Psychiatry and Related Services*, 36, 100-104.
- Becker, D. R., Bebout, R. R., & Drake, R. E. (1998). Job preferences of people with severe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2(1), 46-50.
- Bellamy, G. T., Rhode, L. E., Mark, D. M., & Albin, J. M. (1988). *Supported employment: A Community implementation guide*.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pp. 115-16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rown, L. M., Berkell, D. E., & Schmelkin, L. P. (1992). Professional attitudes: Group differences among vocational and special educators towards the employability of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5(1), 13-22.
- Brunton, K. (1997). Stigm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 891-898.
- Callahan, M. J., & Carner, J. B. (1997). *Keys to the workplace: Skills and sup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Chan, F., Hedl, J., Parker, H. J., Lam, C. S., Chan, T. N., & Yu, B. (1988). Differential attitudes of Chinese student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4, 267-273.
- Chan, F., Wang, M. G., Thomas, K. R., Wong, D., Chan, C. C. H., Lee, G., et al. (2002). Conjoint analysis in rehabilitation counseling research. *Rehabilitation Education*, 16, 179-195.
- Choi, G., & Lam, C. S. (2001). Korean students' differential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 acculturation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4, 79-81.
- Chou, K. S., & Mak, K. Y. (1998). Attitudes to mental patients among Hong Kong Chinese: A trend study over two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4, 215-224.
- Chung, K. F., Chen, E. Y. H., & Liu, C. S. M. (2001).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mental patients and psychiatric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7(2), 63-72.
- Cook, J. A., & Razzano, L. A. (1992). Natural vocational supports for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Thresholds supported competitive employment program. In L. Stein (Ed.), *Innovations in mental Health Services* (pp. 23-4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orrigan, P. W., & Penn, D. L. (1999). Lessons from social psychology on discrediting psychiatric stigma. *American Psychologist*, 54(9), 765-776.
- Corrigan, P. W., River, L., Lundin, R. K., Penn, D. L., Uphoff-Wasowski, K., Campion, J., et al. (2001). Three strategies for changing attributions about severe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27, 187-195.
- Couture, S. M., & Penn, D. L. (2003). Interpersonal contact and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ental Health*, 12(3), 291-305.
- Diksa, E., & Rogers, S. E. (1996). Employer concerns about hiring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y: Results of the Employer Attitudes Questionnair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40(1), 31-44.

- Drake, R. E., Becker, D. R., & Bond, G. R. (2003). Recent research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mental illness. *Current Opinion Psychiatry, 16*, 451-455.
- Dutta-Bergman, M. J., & Wells, W. D. (2002). The values and lifestyles of idiocentrics and allocentrics in an individualist culture: A descriptive approach.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3), 231-242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Eklund, M., Hansson, L., & Bejerholm, U. (2001). Relationships between satisfaction with occupational factors and health-related variables in schizophrenia outpati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 79-85.
- Fan, C. (1999). A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 and knowledge of mental health services between Australian and Asian student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5*, 47-56.
- Farina, A., & Felner, R. D. (1973). Employment interviewer reactions to former mental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2*(2), 268-272.
- Fischler, G. L., & Booth, N. B. (2004). 정신장애와 직업기능, 그리고 직장편의 [*Vocational impacts of psychiatric disorders: A guide for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김상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9에 출판)
- Gaebel, W., Baumann, A., Witte, A. M., & Zaeske, H. (2002). Public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six German cities.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2*, 278-287.
- Garske, G. G. (1999). The challenge of rehabilitation counselors: Working with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65*, 21-25.
- Gellis, Z. E., Huh, N. S., Lee, S., & Kim, J. (2003). Mental health attitudes among Caucasian-American and Korean counseling student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9*(3), 213-224.
- Gibson, D., & Groeneweg, G. (1986). Employer receptivity to the developmentally handicapped: When "yes" means "no." *Canada's Mental Health, 34*(2), 12-16.
- Gretz, S. (1992). Citizen participation: Connecting people to associational life. In D. B. Schwartz (Ed.), *Crossing the river: Creating a conceptual resolution in community and disability* (pp. 11-30). Cambridge, MA: Brookline Books.
- Hand, C., & Tryssenaar, J. (2006). Small business employers' views on hiring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9*(3), 166-173.
- Han, S. Y., & Ahn, C. Y. (1994).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Korea. in G. Yoon, & S. C. Choi (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pp. 301-316). Seoul: Dong-A.
- Hinshaw, S., & Cicchetti, D. (2000). Stigma and mental disorder: Conceptions of illness, public attitudes, personal disclosure and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555-598.
- Holmes, E. P., Corrigan, P. W., Williams, P., Canar, J., & Kubiak, M. A. (1999). Changing attitudes about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25*, 447-456.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Hui, C. H., & Triandis, H. C. (1985). Measurement in cross-cultural psychology: A review and comparison of strategie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2*, 115-120.
- Ingamells, S., Goodwin, A. M., & John, C. (1996). The

- influence of psychiatric hospital and community residence labels on social rejection of the mentally ill.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359-367.
- Islam, M. R., & Hewstone, M. (1993). Dimensions of contact as predictors of intergroup anxiety, perceived out-group variability, an out-group attitude: An integrative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700-710.
- Jackson, J. W. (1993). Contact theory of intergroup hostility: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23, 43-65.
- Johannsen, W. J., Redel, M. C., & Engel, R. G. (1964).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nges during psychiatric nursing affiliation. *Nursing Research*, 13, 342-345.
- Johnstone, M. (2001). Stigma, social justice and the rights of the mentally ill: Challenging the status quo.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10(4), 200-209.
- Kelly, J. G. (1987). *An ecological paradigm: Defining mental health consultation as a preventive service*. New York: Haworth.
- Kim, M. (1993). Conceptualization of mental illness among Korean American clergymen and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s deliver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9, 405-412.
- Kirsh, B. (2000). Work, workers, and workplaces: A qualitative analysis of narratives of mental health consumers. *Journal of Rehabilitation*, 66(4), 24-30.
- Kolodziej, M. E., & Johnson, B. T. (1996). Interpersonal contact and acceptance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orders: A research synthe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1387-1396.
- Kumakura, N., Ito, H., Mori, T., Saito, T., Kurisu, E., Asaka, A., et al. (1992). Attitude change towards mental illness during nursing education: A cross-cultural study of student nurses in Korea, Republic of China and Japan.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6, 120-125.
- Kuo, W. H. (1984).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Asian-American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2, 449-457.
- Levin, A. (2001). Conference focuses on Mental illness stigma. *Psychiatric News*, 38(9), 8.
- Link, B. G., & Cullen, F. T. (1986). Contact with the mentally ill and perceptions of how dangerous they a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289-303.
- Link, B. G., Phelan, J. C., Bresnahan, M., Stueve, A., & Pescosolido, B. A. (1999). Public conceptions of mental illness: Labels, causes, dangerousness, and social distan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 1328-1333.
- Lyons, M., & Haynes, R. (1993). Student perceptions of persons with psychiatric and other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7(6), 541-548.
- MacDonald, A. P., & Hall, J. (1989). Perception of disability by the nondisable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6), 654-660.
- MacDonald-Wilson, K. L., Rogers, E. S., & Anthony, W. A. (2001). Unique issues in assessing work function among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1, 217-232.
- MacDonald-Wilson, K. L., Rogers, E. S., & Massaro, J. M. (2003). Identifying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 limitation, job accommodation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8, 15-24.
- McReynolds, C. (2002). Psychiatric Rehabilitation: The need for a specialized approach. *International*

- Journal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7, 61-69.
- Neary, I. (2000). Rights and psychiatric patients in East Asia. *Japan Forum*, 12(2), 157-168.
- O'Brien, J., & Mount, B. (1991). Telling new stories: The search for capacity among people with severe handicaps. In L. H. Meyer, C. A. Peck & L. Brown (Eds.), *Critical issues in the live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pp. 89-92). Baltimore: Paul H. Brookers publishing Co.
- Okazaki, S., & Sue, S. (1995). Cultural considerations in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of Asian-Americans. In J. N. Butcher (Ed.), *Clinical Personality Assessment* (pp. 107-1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nn, D. L., Kommana, S., Mansfield, M., & Link, B. G. (1999). Dispelling the stigma of schizophrenia: The impact of information on dangerousness. *Schizophrenia Bulletin*, 25, 437-446.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0). Does intergroup contact reduce prejudice: Recent meta-analytic findings. In S. Oskamp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 93-114). Mahwah, NJ: Erlbaum.
- Phelan, J. C., Link, B. G., Stueve, A., & Pescosolido, B. A. (2000). Public conceptions of mental illness in 1950 and 1996: What is mental illness and is it to be feared?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188-207.
- Pinfold, V., Huxley, P., Thornicroft, G., Farmer, P., Toulmin, H., & Graham, T. (2003). Reducing psychiatric stigma and discrimination: evaluating an educational intervention with the police force in England.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8, 337-344.
- Read, J., & Law, A. (1999). The relationship of causal beliefs and contact with users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attitudes to the mentally il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5, 216-229.
- Renwick, R., & Friefeld, S. (1996). Quality of life and rehabilitation. In R. Renwick, I. Brown, & M. Nagler (Eds.),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Conceptual approaches, issues, and applications* (pp. 26-36). CA: Sage Publications.
- Scheid, T. L. (1999). Employment of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Business response to the ADA's challenge. *Behavioural Science Law*, 17(1), 73-91.
- Schulze, B., Richter-Werling, M., Matschinger, H., & Angermeyer, M. C. (2003). Crazy? So what! Effects of a school project on students'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schizophrenia.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7, 142-150.
- Shokoohi-Yekta, M., & Retish, P. M. (1991). Attitudes of Chinese and American male students towards mental ill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7, 192-200.
- Shonkoff, J. P., & Phillips, D. A. (2000). *From Nuerones to neighbourhood: The Science of Early Development, Committee on Integrating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Board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 C.
- Singelis, T. M., & Brown, W. J. (1995).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Lin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 354-389.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rinivasan, T. N., & Thara, R. (1997). How do man with schizophrenia fare at work: A follow-up study from India. *Schizophrenia Research*, 25, 149-154.
- Susin, J. (2004). *Promoting mental illness*

- education in the schools.* (New York State Psychiatric Association Bulletin No, 47). [http://www.btslessonplans.org/art\\_bulletin.htm](http://www.btslessonplans.org/art_bulletin.htm) 에서 2006, 10, 1 인출.
- The U. 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05).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http://www.ada.gov/reg3a.html#Anchor-Appendix-52467> 에서 2007, 11, 18 인출.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Triandis, H., Bontempo, C. R., Villareal, M., Asai, M., & Luccia, N. (1988). Individualism/Collectivism: Cross-Cultural Studi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2), 323-338.
- Van-Dongen, C. J. (1996).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in working and non working persons with mental illn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2(6), 535-548.
- Vezzoli, R., Archiati, L., Buizza, C., Pasqualetti, P., Rossi, G., & Pilo, R. (2001). Attitude towards psychiatric patients: A pilot study in a northern Italian town. *European Psychiatry*, 16, 452-258.
- Wahl, O. F. (1999). Mental health consumers' experience of stigma. *Schizophrenia Bulletin*, 25, 467-478.
- Wallace, C. J., Tauber, R., & Wilde, J. (1999). Teaching fundamental workplace skills to person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50, 1147-1153.
- Weller, L., & Grunes, S. (1988). Does contact with the mentally ill affect nurses' attitudes to m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1(3), 277-284.
- Westbrook, M. T., Legge, V., & Pennay, M. (1993). Attitudes towards disabiliti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Science Medicine*, 36(5), 615-623.
- Wilcox, J. S., Ko, G., Genry, J. W., Stricklin, N., & Jun, S. (1996). Advertising presentations of the independent versus interdependent self to Korean and U.S. college students. *Advances in International Marketing*, 7, 159-174.
- Wilgosh, L., & Mueller, H. H. (1989). Employer attitude toward hiring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Canadian Journal of Rehabilitation*, 3, 43-47.
- Wolff, G., Pathare, S., Craig, T., & Leff, J. (1996). Community attitudes to m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183-190.
- Yuker, H. E. (1995). Attitudes. In A. E. Dell-Orto, & R. P. Marinelli (Eds.), *Encyclopedia of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pp. 94-99). New York: Macmillan.

## Attitudes toward the Employability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the U.S.

Seungah Ryu  
Korea University

Negative attitudes within a community have prevented people with mental illness from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their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negative attitudes have caused lower rates of employment for peopl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ssess the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about employability (comparative employmen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addition, school based education, and contact experience related to mental disorders were compared to the college students in the U.S. Data were collected via a web-based survey tool and a total of 475 students was used for a final data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1) Korean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response toward appropriateness of competitive employment, whereas negative attitudes toward disadvantages of competitive employment than those of American students. (2) Korean students had lower rates of school-based education and contact frequency and negative contact feeling than counterparts. (3) Effective variables on employabilities were gender and contact feeling in Korean sample and social distance and contact feeling in American sample. Research findings would be useful in the workplace regarding interventions to reduce stigma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The interventions with personal contacts and positive public situations might positively influence a point of views regarding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workplace.

*Keywords* : mental disorders, comparative job, stigma, prejudice, education, contact experience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6월 16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10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1월 11일